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정희정
남서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A Study on Self-Express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by Enneatype Among University Students

Chung, Hee Jung
Student Counseling Center,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elf-express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enneagram personality type. The subjects included 241 university students selected from universities in Seoul and Cheonan. The research tools of this study were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 scale, the assertiveness rating scale(self-express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rating scale. The statistics used from this data were one-way ANOVA(Post-hoc Dunca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expression was meaningfully different in content, paralinguistic and nonverbal asser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university students. Second, immediacy, the sub factor of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rating scale varied depending upon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enneatype) of university studen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concerning a study on self-express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self-expression, facilitative communication, enneagram personality type, university students

I. 서론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전

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피상적인 관계로, 관계가 깊어 있게 지속되지 못

함을 느끼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이 서툴러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오거나 타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김순자 2004).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대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기질이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인간의 내면의 깊이를 제공하는 에니어그램은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자신의 고착된 성격과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탐구함으로써 치유와 성숙의 길로 나아가 자신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허혜자 2003). Riso(1999)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자신의 단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그 단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에니어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니어그램은 개성과 굳어진 성격의 자아구조를 비춰주는 도구를 제공하며 (Bear 2001), 우리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자신의 성격 패턴을 인식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탐험하려는 용기에 의해 우리를 영혼의 깊은 곳으로 안내해주는 도구이다 (주혜명 2000).

에니어그램 워크숍 결과 타인의 행동과 생각을 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인관계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김영복(1999)의 연구가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자아발견 워크숍을 실시한 김진영(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최웅 등(1980)의 연구에도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하기 어려운 대상으로는 매력을 느끼는 이성, 교수, 친구, 부모의 순서였으며 대중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기, 친구 만들기, 이성과의 대화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 사상을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송명숙 199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표현훈련의 개발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었고 자기표현성과 그것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연구된 심리적 변인으로는 주로 자아개념, 불안, 우울성향, 공격성 등이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는 그 관계 형성에 관여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인 초기의 발달과제인 친밀한 대인관계의 확립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척도와 대인관계 척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 연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진(1991)의 연구와 전진이(1997)의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경(1991)의 연구와 김유경(1993)의 연구 등은 의사소통 훈련보다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진이(1997)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관심기울이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나-전달법에 초점을 둔 조력기술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박현경(1991)의 연구는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훈련 기법 중 인정, 공감, 자기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생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gers, Carkhutt 등이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대인관계 조건으로 제안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들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자기표현, 측

진적 의사소통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과 축진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자기표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축진적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고찰

1. 에니어그램의 개관

에니어그램(Emmeagram)은 인간의 본성을 9가지 고착과 그 특성들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도형이다. 에니어그램은 9라는 그리스어의 ennea와 그림이라는 뜻의 gram의 합성어이다(Bear 2001). 즉, 원과 그 원주 위에 있는 아홉 개의 점, 그리고 아홉 개의 점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순한 그림 안에 인간의 모든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권태경 1998). 에니어그램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 많은 설이 있으나, B.C. 2500여년 전 이슬람의 신비주의인 수피(Sufi)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현재의 에니어그램 이론은 어떤 한가지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니며, 고대의 전통에서 비롯된 지혜와 현대의 심리학이 결합된 것이다. 근래의 에니어그램은 성격의 유형체계를 뜻한다. 에니어그램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아홉 가지 성격유형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자라면서 그 중 한 가지가 중심 유형으로 굳어지고 나머지 유형들은 날개, 화살, 그림자 유형으로 잠재한다. 하나의 중심유형은 어느 날개로 기울어졌는지, 어느 화살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중심 유형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익숙해서 편하겠지만, 나머지 여덟 가지 유형의 긍정적인 면을 개발해 나가면 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김현정 2002). 에니어그램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개인의 발전을 위

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Baron & wagele 1995). 또한 인간의 잠재력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우재현·우정희 1999), 여기서 발견한 성격유형은 자기개발을 도와주어 높은 수준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Beesing Nogosek & O' Leary 1992).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내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는데, 그 힘은 인간의 본질을 보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해주어(김영복 1999), 스스로가 자신의 자각을 정화하고 자신에 대해 정직해 지도록 하여(Rohr & Ebert 1989), 자신의 내적 발전과정에 개입하도록 도와준다(Rebecca & Rogacion 1988). 그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Rohr & Ebert 1989; Baron & Wagele 1995).

에니어그램의 성격은 인간의 성격의 근간을 본능중심, 감정중심, 사고중심으로 구별하고, 다시 그 안에 3가지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총 9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 힘의 중심은 8·9·1유형을 집단으로 하는 본능중심, 2·3·4유형을 집단으로 하는 감정중심, 5·6·7유형을 집단으로 하는 사고중심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의 성격을 힘의 중심 즉, 본능중심, 감정중심, 사고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능중심의 사람은 다른 중심의 유형보다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행동하며, 감정중심의 사람들은 보다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고중심의 사람은 다른 중심의 사람보다 많은 사고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능중심 사람들의 무게 중심은 우리 실존의 원료가 되는 하복부에 있는데, 그것은 즉각적이며 자발적이고 감각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을 말한다. 또한 대개 진행 중인 일을 파악하는데 신속하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도 통제에 따르도록 만든다. 결정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당연'과 '의무'를 갖고 있다. 비타협적인 이들은 누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 상관치 않고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이정순 1995; 우재현 2002).

감정중심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유형들이다. 이

3가지 유형(2·3·4)의 공통된 최대 재산은 감정이다. 이 유형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높은 가치를 두고 대인관계의 질을 따진다. 이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또는 '호의적인가, 적대적인가'를 자문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상황 파악에 직관적이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와 접촉의 감각 때문이다. 결정과정에서 이들은 관여된 사람들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을 고려한다(이정순 1995; Riso & Hudson 1996; 우재현 2002).

끝으로 사고중심의 사람은 자기생활의 거의 모든 위협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을 타고 소심하다. 때때로 그들 자신의 머리 속에서 생각한 불길한 각본으로 겁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속한 유형들은 생활의 위협에 대한 불안으로 "근심" 유형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사고나 내성의 차원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실을 볼 때,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황 전체를 멀리 넓게 본다. 이들은 관찰, 분석, 비교, 대조의 사고과정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상황을 고찰하고 분석하며 연구하기 위하여 냉혹한 현실을 멀리하기도 한다. 이 중심의 사람들은 결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권위자와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마음을 쓴다.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권위자가 내세우는 지시나 명령을 값지게 평가한다(이정순 1995; Searle 2001; 우재현 2002).

2. 성격유형과 자기표현

Jourard와 Lasakow(1970)는 자기표현이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alverson과 Shore(1970)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Cozby(1973)는 자기표현을 "자기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자기표현을 Jourard 와 Lasakow, Shore 등이 주장하는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대인관계의 상호작용변인(interaction variable)인 사회심리학적 측면과 Himelstein 과 Kimbrough, Cozby, Stokes, Childe 과 Fuehrer 등이 주장하는 자신의 성격특성인 인성심리학적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기표현이 대인관계의 과정인지 또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지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기표현이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 동시에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상호 변인이라는 데 절충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자기표현의 초기의 개념은 일방적이고 개인 중심적 이었으나 점차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면서 타인의 권리와 감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기표현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연구자들은 자기표현이 갖는 자기성장 또는 자기실현의 측면도 고려하게 되었다(김은진 2001).

자기표현에서 자기성장의 측면을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인 Adams(1989)는 자기표현은 내적인 통제감과 개인적인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기표현이란 자신의 가치관,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 한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자기표현에 관련된 변인연구로는 김득란(1986)의 자기표현과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아동용 대상으로 한 자기표현성과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연구(정선아 1987), 그리고 대학생의 성별, 재수여부, 불안, 자아개념과 자기표현과의 관계의 연구(송명숙 1992)등이 있다. 성격과 자기표현에 관련된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MTIC을 실시하여 내외향성격유형을 구분하고 초등학생의 내외향성격유형에 따라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자기수용, 자기표현,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재영 2005)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표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성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

Coie와 Dodge(1982)는 의사소통에 대해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의사소통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언어를 포함한 상징을 매개로 하여 사람이 타인과 맺는 상호 교섭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관계를 개선,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Rogers(1961)는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무조건적 수용(unconditional positive respect), 순수성(genuineness)을 제시하고 이런 태도를 조력자가 피조력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여 피조력자가 이를 지각할 때 피조력자의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Carkhutt(1969), Truax와 Berenson(1967)은 기존의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분석, 검토하여 Rogers의 3가지 촉진적 의사소통변인 이외에 구체성(concreteness), 직면(confrontation), 자아개방(self-disclosure), 즉시성(immediacy)의 4가지 촉진적 인간관계 변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력자가 피조력자에게 언어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이 7개의 인간관계 조건을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7개의 촉진적 인간관계 변인들의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감적 이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고 있는 표면적 감정, 사고 뿐 만 아니라 명백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이해, 표현하여 내담자의 심층적인 자기탐색을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모든 조력의 기초가 된다(Carkhutt 1969). 무조건적 존중은 상담자가 내

담자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려란 내담자에게 비소유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내담자의 특정행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따뜻하게 돌아보는 태도이다(Rogers 1961). 순수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내담자는 일치성을 보이는 것이며 이와 같은 순수성이 결여되면 조력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학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Rogers 1961). 구체성은 조력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감정과 경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논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Carkhutt 1969). 이와 같은 구체성은 개인의 감정, 경험을 논의할 때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 대신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결과 감정과 경험을 보다 명료하게 변별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게 된다(김성훈 2000). Carkhutt(1969)에 의하면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다음의 세 가지 불일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첫째는 내담자의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와의 불일치이고, 둘째는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과의 불일치이며, 셋째는 상담자의 내담자 경험에 대한 지각과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불일치이다. 직면은 이와 같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 태도, 행동상의 모순점, 불일치를 지각하여 이를 명료하게 지적함으로써 내담자의 새로운 통찰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김성훈 2000). Patterson(1974)에 의하면 자아개방은 상담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다. 순수성이 감정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자아개방은 정보나 사실의 공개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순수성과 자아개방은 구별된다. 즉시성은 조력과정에서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즉시성의 본질은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다(Egan 1986). 이와 같이 즉시성은 조력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할 때 상담자가 이를 민감히 지각하여 직접적으로 이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김성훈 2000).

많은 연구자들은 의사소통과 성격유형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심리경향에 따라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로, Yeakley (1982, 1983)가 각 성격유형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르며, 의사소통 유형의 유사성이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Carey와 Hamilton(1985)도 심리유형과 관련된 의사소통 유형의 유사성은 관계만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유형의 차이는 그들의 감정, 생각, 태도, 행동 등 여러 부분에 그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며, 의사소통이야말로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요인이다.

Myers(1962)는 성격유형에서의 유사성이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용이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대인간의 관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조영선 1994).

한편으로 심혜숙과 이상순(1998)은 Satir의 의사소통 유형과 MBTI 심리경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1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와 의사소통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향형(E)에서 일치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내향형(I)에서는 초이성형과 산만형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형(T)에서는 초이성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감정형(F)에서 산만형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성격과 의사소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천안 지역 대학생 241명이다. 본래 3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이 중 미회수된 것,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241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척도, 또래 간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자기표현과 기타 연구 대

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척도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윤운성(1999)이 개발하여 표준화 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는 $\alpha = .88$ 로 나타났다.

2) 자기표현척도

자기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Rakos와 Schroeder의 자기표현 평정척도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고친 변창진과 김성희(1980)의 자기표현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한 내용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내용(content) 하위요인 9문항,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paralinguistic) 하위요인 5문항, 말할 때의 표정,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체언(non-verbal) 하위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표현점수에서 얻은 점수는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또래 간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마정건(1988)이 개발한 촉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참조하여 대학생의 상황에 맞는 대학생의 또래 간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척도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 7개의 변인 영역이며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는 $\alpha = .79$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총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일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천안 내의 대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총 3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 누락된 문항이 있는 질문지,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241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ANOVA를 실시했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
Gender	male	120	49.8
	female	121	50.2
Grade	1	127	52.7
	2	38	15.8
	3	49	20.3
	4	27	11.2
Number of Family	2	3	1.2
	3	31	12.9
	4	145	60.2
	5	47	19.5
	6	15	6.2
	Educational level of Father	elementary	6
middle school		18	7.5
high school		94	39.0
college		108	44.8
graduate school		15	6.2
Educational level of Mother	elementary	11	4.6
	middle school	29	12.0
	high school	125	51.9
	college	74	30.7
Monthly income (10,000won)	graduate school	2	0.8
	<200	47	19.5
	200-250	45	18.7
	250-300	44	18.3
	300-350	51	21.1
Religion	350<	54	22.4
	none	107	44.4
	Christian	71	29.5
	Buddhism	23	9.5
	Catholic	35	14.5
etc.	5	2.1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천안 지역 대학생 241명이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자기표현과의 관계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자기표현과의 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와 같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표현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사후검증결과(Duncan) 사고중심과 본능중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 점수는 사고 유형의 평균은 2.45, 감정 유형의 평균은 2.44로 본능유형의 평균 2.1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말한 내용자체에 어느 정

Table 2. Self-expression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scale

Sub-factor	Self-Expression			
	M	SD	F	Duncan
Content	feeling	2.52	0.53	
	thinking	2.58	0.51	3.39*
	instinct	2.37	0.55	
Paralinguistic	feeling	2.36	0.99	
	thinking	2.41	0.81	4.63**
	instinct	2.04	0.80	
Nonverbal	feeling	2.27	0.81	
	thinking	2.33	0.84	7.81***
	instinct	1.92	0.66	
Total	feeling	2.44	0.59	a
	thinking	2.45	0.56	7.63***
	instinct	2.15	0.56	b

* $p<.05$ ** $p<.01$ *** $p<.001$

도 자기표현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내용(content) 하위요인 면에서는 사고중심이 2.58, 감정중심이 2.52, 본능중심이 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DUNCAN) 사고중심과 본능중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paralinguistic) 하위요인 면에서는 사고중심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정중심이 2.36, 본능중심이 2.04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DUNCAN)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 중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paralinguistic) 하위요인의 점수는 사고 유형과 감정유형이 본능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말할 때의 표정,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체언(non-verbal) 하위요인 면에서는 사고중심이 2.33, 감정중심이 2.27, 본능중심이 1.92의 순으로 사고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Duncan)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 중 태도의 점수는 사고 유형의 평균은 2.45, 감정 유형의 평균은 2.27로 본능유형의 평균 1.9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말한 내용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내용(content) 하위요인,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paralinguistic) 하위요인, 말할 때의 표정,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체언(non-verbal) 하위요인 등 모든 면에서 사고중심이 자기표현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감정중심과 본능중심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3.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 중 즉시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시성에서는 감정중심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능중심이 3.03, 사고중심이 2.91의 순으로 나타났다($F = 7.02, p < .001$). 촉진적 의사소통 중 즉시성의 점수는 감정중심 유형의 평균 3.25로 사고중심 유형의 평균 2.91, 본능중심 유형의 평균 3.0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감적 이해에서는 본능중심이 3.01, 감정중심이 2.98, 사고중심이 2.96의 순

Table 3. Facilitative communication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scale

Sub-factor	Facilitative communication			
		M	SD	F Duncan
Empathic understanding	feeling	2.98	0.48	
	thinking	2.96	0.49	0.19
	instinct	3.01	0.44	
Unconditional positive respect	feeling	2.82	0.50	
	thinking	2.71	0.42	0.80
	instinct	2.74	0.51	
Genuineness	feeling	3.00	0.50	
	thinking	2.93	0.47	0.58
	instinct	3.00	0.46	
Concretness	feeling	3.10	0.52	
	thinking	3.11	0.59	0.01
	instinct	3.11	0.58	
Confrontation	feeling	3.06	0.57	
	thinking	2.93	0.57	1.31
	instinct	3.05	0.48	
Self-disclosure	feeling	2.78	0.56	
	thinking	2.69	0.52	0.46
	instinct	2.72	0.46	
Immediacy	feeling	3.25	0.54	a
	thinking	2.91	0.45	7.02*
	instinct	3.03	0.47	b
Total	feeling	3.01	0.28	
	thinking	2.89	0.26	2.67
	instinct	2.95	0.24	

* $p < .001$

으로 본능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존중에서는 감정중심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성에서는 감정중심과 본능중심이 3.00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성에서는 사고중심과 본능중심이 3.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면에서는 감정중심이 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방에서는 감정중심이 2.78, 본능중심이 2.72, 사고중심이 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축진적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과 축진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자기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표현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말한 내용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내용면에서는 사고중심, 감정중심, 본능중심의 순으로 자기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면에서는 사고중심, 감정중심, 본능중심 순으로 자기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할 때의 표정,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체언면에서는 사고중심, 감정중심, 본능중심의 순으로 자기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말한 내용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내용,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 말할 때의 표정,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체언들의 자기표현 하

위요인에서 사고중심이 자기표현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감정중심과 본능중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기표현이 Cozby가 주장하는 자신의 성격특성인 인성심리학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자기표현을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대인관계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과 Cozby가 주장하는 자신의 성격특성인 인성심리학적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고, 자기표현이 대인관계의 과정인지 또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지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축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축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 중 즉시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성에서는 감정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능중심, 사고중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감적 이해에서는 본능중심, 감정중심, 사고중심의 순으로 본능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존중에서는 감정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성에서는 감정중심과 본능중심이 같은 점수로 나타났다. 구체성에서는 사고중심과 본능중심이 같은 점수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면에서는 감정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방에서는 감정중심, 본능중심, 사고중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경향에 따라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다는 Yeakley(1982, 1983)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Satir의 의사소통 유형과 MBTI 심리경향의 관계를 연구한 심혜숙과 이상순(1998)의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셋째, 대상자들의 자기표현과 축진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기표현과 축진적 의사소통에서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최웅(1980)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에 차이가 있으며, 촉진적 의사소통에도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천안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폭넓은 표집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자기표현,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 외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폭넓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학생들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세부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득란(1986)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순자(2004)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자기 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복(1999) 에니어그램 워크숍을 통한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경(1993) 어머니의 영아기 子女指導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진(2001) 자기표현훈련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과교육연구 5, 103-120.
 김진영(2001) 에니어그램 자아발견 워크숍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현경(1991)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자아실현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변창진·김성희(1980) 自己強化의 形成과 學業成績과의 相關. 대구: 경북대학교.
 송명숙(1992) 대학생의 자기표현성에 관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혜숙·이상순(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분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 1-24.
 우재현·우정희(1999) 잠재력 개발을 위한 에니어그램 훈련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우재현(2002)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제4정판. 대구: 정암서원.
 윤운성(1999) 에니어그램 이해. 서울: 학지사.
 이은진(1991)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기법 훈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순(1995) 가족체계 및 어머니와 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우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진이(1997) 조직훈련기술이 대학생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사회적 불안 및 지각형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선아(1987) 아동의 주장성과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재영(2005) 초등학교생의 내·외향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자기수용, 자기표현,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영선(1994) 상담자, 내담자 성격 유사성이 상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주혜명(2000) 에니어그램의 지혜. 서울: 한문화.
 최웅(1980) 자기발표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학생생활연구 12.
 허혜자(2003) 아동용 에니어그램 프로그램 개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dams L(1989) Effectiveness of training of women. New York: Random House.
 Baron Wagele(1995) The enneagram of parenting: the 9 types of children and how to raise them successfully. San Francisco: Harper SanFrancisco.
 Bear EJ(2001) The enneagram of liberation
 Beesing Nogosek, O' Leary(1992) Das wahre selbst entdecken: eine einfuehrung in das enneagramm. Wuerzburg: Echter.
 Carey JC, Hamilton DL(1985) Psychological type and interpersonal compatibility: Evidence for a relationship and relational satisfaction in collegy roomate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0, 36-40.
 Carkhuff R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hip. Holt, Rinegart and Winston, Inc.
 Coie JD, Coppotelli H, Dodge KA(1982) Demention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 Developmental Psychology. 8(4), 557-570.
- Cozby PC(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Halberson CG, Shore RE(1970)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Myers IB(1962) Manual: the Myers - 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Rebecca Rogacion(1988) Enneagram. Berkely : Osborne McGraw-hill.
- Riso DR, Hudson R(1996) The Personality types. Boston & New York: Houghton Mifflin.
- Riso DR, Hudson R(1999) Personality types. New York: Houghton Mifflin.
- Rogers CR(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hr E(1989) Discovering the enneagram: an ancient tool for a new spiritual journey. New York: Crossoad.
- Searle J(2001) The literary enneagram. Portland: Metamorphous Press.
- Truax B(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New York: Aldine Pub.
- Yeakley FR(1982)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s and adjustments as an approach to studing effects of similarity in psychological type. Research in Psychological Type.
- Yeakle FR(1983) Implication of communication style research for psychological type theory. Research in Psychological Type.